

보도설명자료 (’20. 11. 10.)

수신 : 산업통상자원부 등록기자

제목 : 정산단가는 정부가 임의로 결정할 수 없으며, 기사에서
제시한 발전단가와 정산단가는 평균의 오류를 범하고
있어, 이를 기반으로 산출한 전력구입비는 사실과 다름
(11.10, 조선일보 기사에 대한 설명)

- ◇ 정산단가는 시장에서 결정되며, 정부가 임의로 결정할 수 없음
- ◇ 특히, 기사에서 제시한 발전단가와 정산단가는 산출대상, 산출
방식 등에서 평균의 오류를 범하고 있음
- ◇ 11월 10일 조선일보 <정부, 한전 자회사에 발전단가 후려치기... 1조
6,000억 손실 떠넘겨> 보도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드립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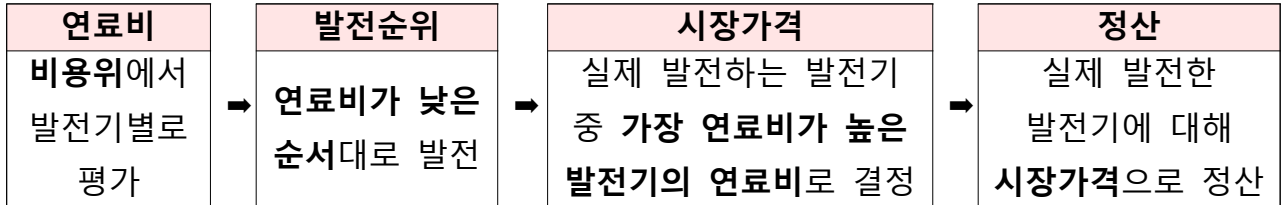
1. 보도 내용

- 정부가 LNG(액화천연가스) 발전단가를 원가보다 매우 낮게 책정해
한전의 자회사인 발전공기업들에게 막대한 손실을 떠넘김
- 발전공기업의 손실은 모회사인 한전의 부채증가로 이어져 결국
국민부담으로 이어질 수 밖에 없음
- ‘19년 발전공기업 LNG 발전원가는 154.5원/kWh인 반면, 이 전기를
한전에 판매하고 받은 돈은 118.7원/kWh으로 23% 싸게 전기를 판매
 - 또한, 정부는 ‘30년 LNG 발전원가를 111.17원/kWh으로 전망
하였는데, 이는 ‘17년 LNG 발전원가인 141.6원/kWh 대비 21.5%,
‘19년 LNG 발전원가 154.5원/kWh 대비 28% 낮은 금액임

2. 동 보도에 대한 산업부의 입장

- ① 정산단가는 시장에서 결정되며, 정부가 임의로 결정할 수 없음

[시장가격 결정 및 정산]



- ② 한전은 발전공기업, 민간발전사 구분없이 시장원리에 따라 가장 저렴한 발전기순으로 비용을 최적화하여 전력을 구매하고 있음
- ③ 기사에서 제시한 발전단가와 정산단가는 산출대상, 산출방식 등에서 평균의 오류를 범하고 있어, 단순 비교하는 것은 부적절
- 특히, 발전공기업의 연료비는 높고, 민간발전사는 직도입 등으로 연료비가 낮은 상황에서, 일부에 불과한 발전공기업의 높은 발전단가로 전체 전력판매량을 모두 구입한다는 전제로 전력구입비를 구하는 것은 부적절

[기사에서 제시한 발전단가 및 정산단가 비교]

구분		발전단가	정산단가
산출대상		발전공기업	발전공기업 + 민간회사
산출방식		(발전공기업 회계적 총비용) ÷ (발전공기업 전력판매량)	(전체 LNG 전력판매대금) ÷ (전체 전력판매량)
수치	'17	141.6	111.6
	'18	143.1	121.0
	'19	154.5	118.7
	'30	-	111.2 (8차 수급계획 전망)

- 이에 따라, '19년 발전자회사의 LNG 발전단가와 '30년 전체 LNG 정산단가를 비교해 전력구입비 5조원이 증가한다는 것은 사실과 다름

※ 문의: 전력시장과 이옥현 과장/박영진 사무관(044-203-5174)